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

“너희 형제 생각하기를 네 몸같이 하며, 만민에게 친절하며, 너희 재물을 값 없이 나누어 저들로 너희 같이 부하게 하되,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좇으리니, 헐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피 구제하게 되리라.”(야곱서 2 : 17~19)

물문경에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과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 상태에 빠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마서 4 : 8~10 참조)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주로 재물, 자존심, 명예 및 권세 등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데 전념합니다. 재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쪽에 마음이 얽매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물질주의란 강박 관념, 즉 어떤 것의 몰두 또는 강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가 어떻든, 우리가 마땅히 가장 먼저 두어야 할 우선 순위를 바꿀 정도로 관심을 쏟을 때 그것을 물질주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유사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되어 왔습니다. 탐욕은 물질주의의 가장 추악한 면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시키는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효과적인 도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많이 하셨으며 탐욕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을 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석, 장식품, 의복, 돈 및 온갖 종류의 장신구와 같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과시할 수 있는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지식,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력 특별한 재주 등을 과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재능과 적성을 타고나지만 그 능력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지식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된 것으로서 이기적인 목적이나 무절제한 낭비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재물에 현혹당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영적인 손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소유했다가 잃게 된 사람은 비참하고 증오에 찬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재물에 현혹당하여 희생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축복을 받을 때면 항상 그것들이 궁핍한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십시오. 부를 구하지 말고 영생을 구하십시오. 세상적인 부는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뒤로한 채 단지 우리의 영적인 축복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는 선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그들에게 행했던 일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극도로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가운데 흔히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시간과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제쳐 둡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종종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자녀들과 부모 간의 사랑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는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는 결코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부에 대한 강한 열의를 갖게 되면 흔히 교회 활동과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욕망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 왕국에서의 부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능력을 바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영원한 축복을 잃게 됩니다. 세상적인 쾌락은 때때로 우리가 표준을 낮추어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며 심지어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주님의 권고를 맨 먼저 생각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에 직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된 기도

다음 이야기는 헌트 장로의 선교 사업 기간 중 가장 영적인 시기에 대해 말한 것을 옮긴 것입니다.

아주 오랜 전에 행촌이라는 마을에서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펜과 연필조차 얼어서 딱 눌러 써야 겨우 글씨가 써질 정도였습니다. 언제나 일을 열심히 하는 내 동반자 클레멘트 장로가 우리의 그 당시 기상 시간인 새벽 네시 반에 나를 불러서 그날을 위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한달 동안 봉사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침례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토론도 없었으며, 구도자와의 약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행촌은 매우 활동적인 목사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읍내에서 큰 교회를 세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종교를 독점하려고 했으며 그의 신도들은 목사에 의해 잘 가르쳐졌습니다. 그들은 물론 선교사들을 보면 반 그리스도요, 이단자라고 불렀고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나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경을 전해

주고자 다가가는 모든 노력이 계속 박해를 받고 방해받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팽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메시지를 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늦은 저녁, 다른 날에도 늘 그랬듯이 우리는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두드립시다” 하고 결정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친절한 신사가 우리를 안으로 초대하여 첫번째 토론을 듣고난 후 두번째 토론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아파트를 나서면서 우리의 가슴은 주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거리로 나와 걸을 때 이가 딱딱 부딪칠 정도로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한 우호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영어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이 차를 타시죠.” 그 신사는 자신을 김씨라고 소개했는데 그 읍내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선교사와 토론을 했지만 침례받기 전에 이사했어요”라고 그 신사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물론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마음놓고 우리 사무실에 들러 토론을 가르치시고 원한다면 내 직원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헌트 장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금식과 기도의 힘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영의 인도하심을 자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기도를 하면서 영어 물론경을 한권 가져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영어 물론경이 필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영의 속삭임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나와 동반자 모두 선물로 줄 영어 물론경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길에 선교 본부에 들러 한 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본부에 가서 나는 다른 선교사들과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느라고 출판부에서 영어 물론경을 한 권 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유감스럽게도 동반자와 함께 오던 스티븐 자매와 마주쳤습니다. “자매님, 혹시 영어 물론경 갖고 있습니까?”라고 내가 묻자 그들이 내게 한 권을 주었습니다.

저녁에 가두 전시를 하고 있는데 한 한국 신사가 매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 교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영어로 대답을 하며 자기가 미국에서 살았던 한국인 이세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의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어 물론경 있어요? 난 한글을 읽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날이 내 선교 사업 기간 중 영어 물론경이 필요했던 유일한 날이었으며, 또한 내가 영어 물론경을 준비했던 유일한 날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만사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명하노니,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는 바를 그대로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며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라. 나는 너희가 구원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기 바라노라.”(교성 46:7) *

(다음 글은 신 호범 선교부장의 자매인 도나 신(Donna Shin) 자매님이 보내준 것입니다.)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별세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명예 회원인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82세)의 장례식이 지난 12월 27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거행되었다. 버튼 장로는 12월 22일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

버튼 장로는 1960년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았으며, 1976년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1989년 10월에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명예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1927년부터 1930년까지 유럽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서독 선교부장,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유럽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그 후 유럽 지역의 지역 관리자 및 교회의 계보 협회(현재 가족 역사 도서관)의 관리자 등을 역임했다. 또한 감독, 고등 평의원 및 내제사 정원회

지도자로서 봉사했다.

유기 화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해박한 교육자였으며,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을 당시 대학 교수였다.

유족으로는 1933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한 아내와 아들인 로버트가 있다. 로버트 버튼 형제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컴퓨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버튼 장로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다. “나는 언어나 피부 색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중시하는 전 세계적인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붉은 지붕의 도시 “시드니”

지구의 남반구 적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거의 정반대에 위치한 호주 시드니에 한국 성도 20여 명이 살고 있다.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소속의 한 인상 형제 부부는 시드니 하이드 파크 와드를 방문하여 한국어로 주일학교를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았다.

멀리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주일학교 시간이 더 없이 귀중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내에서 말일성도가 된 이들은 활동적인 회원들이었으며, 열심히 학업과 생업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한 형제 부부를 초청한 김 명조 형제는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영동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였으며, 사업 확장을



시드니 성도들과 함께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여행중에 환대를 받은 한 인상 형제

부부는 시드니 성도들의 우정과 사랑에 감사하였다.*

서울 서 스테이크 송년 음악의 밤

서울 서 스테이크는 지난해 12월 24일 노량진 와드에서 '89 성탄 음악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메시아 중의 4곡을 포함한 10여 곡의 합창과 중창을 연습하였다. 기 영서, 김 홍형제의 지휘와 신 은영 자매의 반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조 정환 스테이크 부장은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널리 전해야 함을 강조 하였다.

서 스테이크 독신성인들은 해마다 이러한 음악회를 주최하는데, 이를 통해서 음악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서 스테이크 독신 성인 합창단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날 음악회는 합창단의 음악적

수준과 함께 청중들의 예절과 수준도 예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1990년 훈련 일정

...1990년도 한국 선교사 훈련원의 일정을 안내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기를 희망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8일-19일	7월 16일-27일
2월 12일-25일	8월 13일-24일
3월 12일-23일	9월 17일-25일
4월 16일-27일	10월 15일-26일
5월 14일-25일	11월 12일-23일
6월 18일-29일	12월 10일-21일

한국 선교사 훈련원 입소 준비 사항

- 1) 성전 추천서 지참
- 2) 선교사 부름에 관한 스테이크 부장의 안수
- 3) 반명함판 사진 3매
- 4) 선교사 복음 토론을 구입
1토론부터 3토론까지 암기
- 5) 매일 물문경을 읽고 입소시 간증을 백지 5장 정도 제출

- 6) 필기 도구, 표준 경전
- 7) 부름 받은 날짜보다 일찍 입소하기를 원하실 경우 부름받은 선교부의 선교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
- 8) 입소 시간 : 입소 당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성전으로 오시면 됨(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하루 먼저 오셔서 성전에서 기숙할 수 있음) *